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70호 [비판]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12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HDI) 주소 :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8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 정부혁신 주도하는 대한민국 혁신리더

머릿글 (주)한국야쿠르트 감사 백영진

1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영국 라이프컨설팅 회장 우즈 라이프

커버스토리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나의 경영이야기 (주)금천코퍼레이션 사장 강연구

지자체특강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천규승

발행인편지

2006연구원이모저모

세상을 보는 눈 서비스월드 대표 정영주

회원&연구원소식

LMI & YOU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December

# 12

# 건강 장수식품 요구르트와 유산균 이야기

백영진 (주)한국야쿠르트 감사



## 인류의 최대

소망 가운데 하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수명이다. 그러나 식생활이나 운동을 통하여 평균수명을 어느 정도는 늘릴 수 있다.

세계적인 장수촌 주민들의 생활 공통점은 영양 균형이 좋은 신선한 식품을 먹고, 과식하지 않으며, 유산균 발효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사실이다. 건강장수를 하려면 마음이 편안하고 소화기관인 장도 튼튼해서 속이 편안해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산균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미생물의 한 종류로서 오랜 역사를 두고 발효유제품을 중심으로 각종 발효식품, 장류(醬類), 김치, 젓갈류, 발효소세지, 생균제, 사일리지 및 가축의 사료 첨가제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 유산균은 사람이나 포유동물의 소화관, 구강, 질(腔), 그리고 각종 발효식품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파스퇴르(Pasteur)가 1858년에 유산균을 처음 발견한 이후 유산균 발효유의 과학적 효능은 20세기 초 생물학자 메치니코프(Mechnikoff, 1908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가 1908년 발효유를 먹으면 건강장수(健康長壽)한다는 연구결과를 <생명의 연장(The Prolongation of Life)>이라는 책에서 밝혔다. 이 책에서 메치니코프는 불가리아 지방 사람이 장수하는 원인이 유산균으로 발효된 '불가리아 우유'를 항상 먹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여 처음으로 유산균 발효유의 건강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후에 알려진 많은 연구결과는 발효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인체에 해로운 병원성세균, 식품부패균 등의 증식을 억제하고, 이로온 세균의 생육을 촉진시켜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히 해 소화흡수를 촉진시키고,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며, 면역기능을 증강시키고,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유산균은 장내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불활성화 시키고, 암 발생에 관여하는 효소작용을 억제시켜 장암(腸癌)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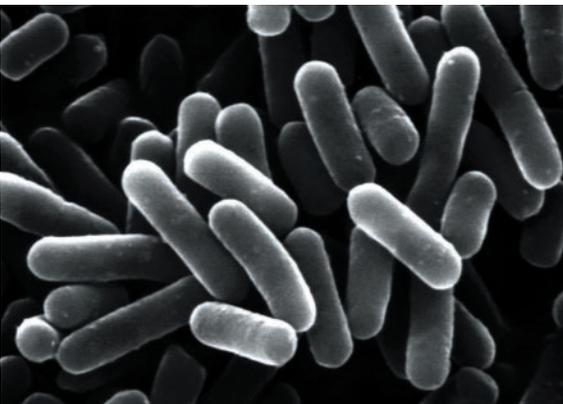
요구르트(Yogurt)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유제품으로, 유산균에 의해 발효된 우유의 영양과 유산균의 효능 그리고 첨가한 과실의 영양가치를 합친 것이다. 또한 우유를 먹으면 가스가 생기고 심하면 설사를 하여 속이 불편한 사람도 요구르트를 먹거나 우유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우유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유산균이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과 신명기 32장에도 발효되어서 영긴(curd) 소젓과 염소젓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미 요구르트와 비슷한 발효유를 만들어 먹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발효유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발효유는 페니키아(Phoenicia)시대 이전에 동지중해 지역에서 유목민들의 음식으로 발전되어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나 북미의 요구르트는 과실이 첨가된 떠먹는 호상(糊狀) 요구르트가 대부분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과즙을 넣어 마시는 형태의 액상 요구르트가 많이 소비되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지역 등에서도 액상 요구르트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발효유의 섭취 시기는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편리한 아무 때 먹어도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이 살아서 위장을 통과하여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 동일한 정장효과가 있음이 임상결과 확인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우리나라 발효유의 소비량은 일인당 약 11kg 정도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서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2~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과 웰빙 바람으로 유산균 발효유 시장은 건강증진 기능이 크게 강조된 기능성 요구르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유산균 발효유 요구르트는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장수 식품임에 틀림이 없다. **人間**



### 백영진 감사

1946년 생으로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고경영자과정도 수료했다.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중앙대 산업과학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12월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초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데오  
(小林 英夫)  
일본 와세다대 교수

## 한일 경제관계의 미래

1481회 12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룸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핵심축이 된다. 특히 세계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숙명적 라이벌 관계에 놓여있다. 여기에 뿌리깊은 정치, 외교적 갈등은 상호의존도가 높은 한일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 간 산업구조도 여전히 일본에 대해 '협력'과 '종속'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도 매년 늘어난다. 여기에 '원화강세, 엔화약세' 문제, 한일FTA 협상 난항 등 양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 대학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일 경제관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일본의 소니와 한국의 삼성이 기술력을 제휴하기로 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에 양국은 앞으로도 IT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일경제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고바야시 히데오 와세다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을 향한 한일 경제관계의 과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日 도쿄도립대학 법경제학부 졸업 / 日 도쿄도립대학 경제학 석사 / 日 도쿄도립대학 역사학 박사 / 고마자와대학 경제학부 교수 /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양연구소 교수 /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양연구소 원장 / 일본자동차부품산업연구소 소장

〈저서〉 일본의 자동차부품 산업과 중국전략,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정치변용,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실태 및 특징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외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

## 블루오션 민들레영토의 경쟁력 - 감성이 돈을 좇추게 한다

1482회 12월 1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룸

우리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그리고 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문화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도 감동, 만족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고객이 가슴깊이 느껴야 하고 행복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다.

1994년 봄, 서울 신촌에 10평의 공간으로 출발한 민들레영토는 12년만에 23개 지점, 종업원 600여명의 성공한 토종카페로 자리잡았다. 민토가 '글로벌 카페'를 꿈꿀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손님을 '침김'으로써 가능했다.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마더마케팅'이 고객들에게 감동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토는 편하고 자유로운 열린 공간으로 아날로그를 지향하면서도 디지털시대 젊은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또한 상업적인 시설이면서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험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에 민토는 올해 중국과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3년 내에 해외지점 3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비스업종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 즉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지승룡 사장은 민토의 라이벌을 카이스트라고 말한다. 카이스트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에서는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데, 민토도 끊임없는 역발상과 고객의 마음을 붙잡는데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섬세한 서비스로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토종카페 브랜드 민들레영토의 지승룡 사장을 초빙하여 마더마케팅을 통한 고객만족 전략과 이를 통한 세계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신학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극단 예꿈 이사장 / 다일복지재단 이사 / 도시문화연구소 소장  
〈저서〉 민들레영토에 핀 사랑, 선배처럼 살아라, 민들레영토 희망스토리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2006년 한국경제 회고와  
2007년 전망

1483회 12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룸

2006년 한국경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기업의 부실과 심각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허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지표상의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저성장의 그늘에서부터 산업구조의 왜곡,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상황, 이를 해결할 정책조합의 구상능력까지 현 상태로는 성장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의 단기회복과 장기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장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경기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해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절상을 겪었던 원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가처분소득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 경기의 탄력적 성장으로 인한 수출호조, 건설경기 회복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올 한해 우리경제가 걸어온 환경을 되돌아보고, 성장력 복원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와 함께 2007년도 우리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뉴욕주립대 Albany대학원 경영학 석사 / 美 미시간대 경영학 박사 / 美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학과장, 경영대학원장, 상경대학장 / 美 하와이대 초빙교수 /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 한국경영학회 회장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외이사 겸 비상임감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문위원 <상훈> 연세학술상, <전경련>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저서> 국제경영학, 마케팅전략, 다국적기업의 실제, 중국의 시장과 기업(공저) 외



문화지식병영 후원 송년의 밤

# Music & Happy Story

· 일 시 ······ 12월 26일 화요일 6시 30분 ······  
· 장 소 ······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시청앞) ······

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마지막 잎새처럼 끝자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의 향연.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들과 함께하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뮤직토크쇼.

국제적인 프리마돈나 이종미 소프라노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소프라노 이종미



작가 최윤희

행복디자이너 최윤희 작가와의 구수한 살아가는 이야기.

인간개발연구원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감미로운 시간으로 송년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경영자연구회를 통해 매주 함께 정을 나누던 회원님.

연구원이 지식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주신 감사님.

연구원의 비전에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희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6년부터 군 장병들이 제2의 인생에서 더욱 큰 비전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는 문화지식병영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송년의 밤에서는 문화지식병영사업 중 하나로 육군본부, 공군본부, 5군단에서 진행되고있는 병영혁신아카데미의 장을 넓혀 2007년에는 더 많은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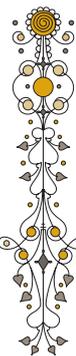
## P R O G R A M

- 6:30 - 7:00 리셉션
- 7:00 - 7:15 오프닝 공연
- 7:15 - 7:45 디너, 초대인사-조순 명예회장, 사업안내, VIP인사
- 7:45 - 9:00 뮤직토크쇼  
소프라노 이종미, 작가 최윤희
- 9:00 - 9:10 경품추첨 및 마무리

제147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11월 9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

우쯔 라이프(Utz Reiff) 영국 라이프컨설팅 회장



오늘 나는 뉴리더십(New Leadership)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우리가 21세기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지금 테이블에 종이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써 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강연이 끝나고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써 보라. 한 시간 뒤에 여러분이 나갈 때, 무엇을 얻어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맞추어 보라.

##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는 쪽인가 해결을 하는 쪽인가? 보편적 리더십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독일사람이다. 독일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좋아한다. 철학의 질문은 바로 '왜?' 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회사상사가 가라고 해서 와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와있는가를 적어 보라.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창의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창의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깊은 내면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 실험을 해 보라. 내가 그저 이렇다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말고, 직접 실험을 해 보라.

그래서 오늘밤 잠들기 전에 내가 지금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서 잠들라. 잠들 때는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도록 펜과 메모지를 곁에 두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해답이 한밤중에 생각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적으려고 하면 절대로 생각나지 않는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실천한다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질문은 보편적인 리더십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무엇이 좋은 리더십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리더십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적어 보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분들은 늘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같은 수준의 동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한 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의 실천

### 멘토링은 리더십을 함양하는 최고의 방법

리더십은 멘토링(mentoring)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 멘-토-링, 이것은 무엇인가? 멘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보는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누가 가장 훌륭한 멘토가 되는지 묻는다. 정답은 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멘토가 된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젯프로 모션랩(Jet Promotion Lab)이라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나사(NASA)에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회사의 리더들에게 1,000명이 넘는 회사직원에게 어떻게 하루에 두 번씩 멘토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답은 간단하다고 했다. 하루에 총 두 번, 커피-브레이크(coffee-break) 한 번과 티-브레이크(tea-break) 한 번을 가진다고 했다.

회사의 규칙은 브레이크타임이 되면 전 직원 누구든지 하던 일을 놓고 최대 1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 규칙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의 시간 사이에 하던 일을 멈추고, 커피 또는 차를 마시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는 잘 모르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누게 되어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오다 보면 전에 일하던 사람이 또 만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점심식사를 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거나 늘 하는 일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테스트'를 고안해냈다. 엘리베이터테스트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약 30초의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 회사는 이리이러하고 내가 하는 일은 이리이러한 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서,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해 보길 바란다. 만약 나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은행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관계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중요성

리더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리더의 역할은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또 리더의 역할은 자기가 이끌고 있



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어나 한국어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그 언어가 중요하다. 역사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익하다. 트라팔가르전쟁(Battle of Trafalgar)이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맞서 싸울 때 넬슨(Nelson Horatio, 1758~1805)제독이 영국 편에 있었다. 그 때 불행하게도 영국해군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술집으로 갔다. 그리고 돈이 없어 술값을 못 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신에 술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해군으로 일하게 했다. 그들을 모두 배에 태운 뒤 장교들은 갑판 위에 나와 있고 술집에서 데려온 해군들은 배 밑에 가두었다. 그들을 가두지 않았다면 모두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넬슨제독은 해군들이 실제로 그들 스스로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들게끔 온갖 말을 해서 마음을 격려해주어야만 했다. 넬슨은 그들에게 “내일 정오에 영국은 모든 남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넬슨제독은 정말 현명했다. 왜냐하면 넬슨제독 자신이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한다”라든지 또는 어느 개인의 소망이라고 설득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 상황이 달랐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넬슨제독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 리더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 가는 것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다. 여러분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대답이 돈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21세기에 성공할 것이다. 사업을 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됨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기업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만약에 회사에 출근해서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직면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반드시 전문적이어야 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며 그 목표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

용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태까지 해오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할 때에는 정부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아주 주의 깊게 살펴 보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참 좋겠다, 또는 그런 상태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은 도전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실행성과가 좋게 나타난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 자기 자신과의 대화,

###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데 대한 셀프이미지의 중요성

21세기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실천해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시각화해서 그려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여러 번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자신의 내면컴퓨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감정에 있다. 우리의 마음컴퓨터는 미팅을 했을 때 정말 행복한 미팅이었는지 좋지 않은 미팅이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한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라든지 말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을 누구에게 소개한 다든지 또는 친구를 소개할 때 무미건조하게만 말하지 말고 그에 덧붙여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함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셀프이미지(self-image) 즉, 자아상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 또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늘 자기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기업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모든 나라도 그렇다.

## 태평양연구소의 3가지 커리큘럼

### - 개개인의 독특함 · 잠재성 · 책임감

태평양연구소(Pacific Institute)에 대해 설명하겠다. 태평양연구소는 50여 개국에서 15개 언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일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사항은 개인 하나하나의 독특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제품, 부서, 국가 등 모든 것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경제관련 부처 장관의 잘못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잘못이며, 모든 것은 우리 책임,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하나의 힘이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됨(Korean-ship)은 무엇인가? 마치 카누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방치해두었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 리더십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관찰을 잘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식탁에 동전을 올려두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식탁 위의 동전을 들여다 보라. 영국에서 사용하는 2펜스 짜리 동전이다. 동전의 깃털이 나와 있는 쪽을 보라. 깃털 밑의 양쪽 리본에 무엇이 쓰여있는지 보라. 왼쪽에는 독일어로 'ich', 오른쪽에는 'dien'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의미는 '내가 봉사한다'는 뜻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더러워진 동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아는가? 치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콜라에 넣을 수도 있다. 오늘밤에 해 보라. 아주 흥미롭다. 이렇게 동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빛나게 만들라. 그런 다음에 깨끗해진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동전을 주라. 동전을 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연쇄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한다면 한달 안에 4~5명의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동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장려할 수 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며, 리더십을 함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멘토링을 통해서이다. 또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人間**



# 정부혁신 주도하는 대한민국 혁신리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 오경근 원장



**담쟁이** - 도중환

이용섭 장관이 평소 혁신을 주장할 때 인용한다는 도중환의 시다. 특히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문구는 혁신의 본질적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강조한다.

담쟁이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물 한방울 없고 /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혁신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외치는 이유도 정부가 먼저 혁신하지 않고는 사회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장과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역임하고 행정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은 조세분야 '4대 핵심 보직'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모두 거친 세금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국세청장 시절의 개혁성을 인정받아 혁신관리수석으로 발탁된 후부터는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혁신리더'의 사명을 무리 없이 수행해오고 있다. 학연이나 지연을 따지지 않고 능력과 혁신성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코드와 일치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직내부의 혁신을 우선하다보니 국민들의 체감성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장관. 그러나 앞으로 혁신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함께 하는 혁신을 추진해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를 일궈내겠다고 다짐하는 혁신리더 이용섭 장관을 만나 사회변화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후 혁신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대담 : 정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용섭 장관

1951년 생으로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4회 합격으로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 등 부서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후 관세청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장에 발탁되면서 참여정부와 연을 맺은 그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정부혁신을 주도하던 중 지난 3월 행정부 장관에 취임했다.

※ 장관님께서 소위 말하는 특별한 ‘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정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국세청장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솔직히 국세청장 자리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니다. 저도 국세청장이 된 것을 방송을 듣고 알게 됐죠. 대통령과 고향도 다르고 그 동안 한번도 뵈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과거 같은 면 서로 자기가 노력했다고 생색을 낼텐데 과연 새로운 세상이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사를 보면 참여정부의 인사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사수석은 저를 발탁한 이유로 세금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을 들었습니다. 정실을 배격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후 국세청장 시절의 개혁성을 인정받아 혁신관리수석으로,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나 지역, 인간관계와 같은 연고를 따지지 않고, 능력이나 성과, 혁신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만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그 동안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재정경제부에서 보낸 뒤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직 수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 장관에게는 직원들의 마음이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관리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장관에 임명됐을 때 행자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국세청과 관세청을 운영해본 경험 덕분에 7개월이 지난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걱정했던 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과거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사회 때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매우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변화와 속도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지식정보화사회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관장의 자질은 과거 경험보다도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 리더십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 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을 과거의 성공 경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이나 관행에 집착하다보면 새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행자부는 정부기관들의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라서 혁신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숲속에 있으면 숲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자부 밖에서 왔기 때문에 행자부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진단 할 수 있었고, 그간 연고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장관님 이름 뒤에는 항상 ‘혁신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최근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혁신이 필요한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생존과 번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혁신 중이며, 21세기 초반의 화두가 혁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과거 제국들의 쇠퇴원인이 자연의 재앙이나 외세침입보다도 변화에 대한 내부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과거에도 그랬는데, 속도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망하거나 종속당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앞으로는 혁신격차(innovation gap)가 미래의 발전을 좌우할 겁니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중시하는 이유도 정부가 먼저 혁신되지 않고서는 사회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혁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범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의 주역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추진한지도 4년이 다되어 갑니다. 특히 장관님께서 지난 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통해서도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주시죠.

◆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변하고 있어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죠.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봉사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업무를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고 친절해졌어요. 이제 예전 같은 급행로나 떡값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연공서열에서 결정되던 보수나 인사가 민간기업처럼 성과와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고위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치열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직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면 공직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처의 주요 정책보고서와 업무추진비 등이 공개되고 있고, 과거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였던 정경유착이 단절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전반에 새로운 원칙과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혁신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지금 우리의 혁신경험과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방문하고,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행정시스템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과 투명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지수는 세계 5위죠. 지난 6월에는 유엔 혁신부문 특별상을 수상했고, 9월에는 유엔 사무처 소속기구인 유엔 거버넌스센터가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평가에 비해 국민들의 평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직내부의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과가 정책과 서

비스 변화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국민접점 기관인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의 혁신이 뒤늦게 출발하여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해소, 정경유착 단절 등 새로운 변화가 혁신성과로 평가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혁신된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고, 공무원들은 “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무원연금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매년 재정에서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8,452억원,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지원할 계획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귀속되고 연금지급이 어렵게 돼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전문연구기관(KDI) 용역결과와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민간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개선안을 종합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개선방향은 국가의 적정 재정부담 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및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민·공무원·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지난 40년간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난 10월 4일 도로명주소법(약칭)이 공포되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 도로명사업은 100년 전에 만든 지번주소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죠.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기존의 토지번호주소(지번주소)에서 도로이름이나 건물이름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되는데, 이에 따른 국민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향후 5년간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에 정착되면 신속정확한 위치찾기와 외국인 불편 해소, 도시미관개선은 물론 ‘몰어몰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면 시행되는 2012년 이후에는 길찾기 비용감소, 택배와 배달분야 물류비 감소 등 연간 4조 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 우리나라 측지기준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자국의 측지계인 동경측지계를 적용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국 지형에 맞는 측지계가 아니라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동경측지계는 일본지형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고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국제적 표준계인 세계측지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측지계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측지계로 GPS(법세계 위치측정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측지계로 변경함으로써 일본식 지적측량제도 탈피를 통한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더불어 GPS의 정밀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비용·고효율의 지적측량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지방의 발전 없이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고, 국가발전 없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죠. 이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혁신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자체를 규제·간섭·통제하는 수직적 운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지원자,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자, 균형발전 주도자, 국가와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운영의 통합성과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속의 지방’이라는 기본틀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지자체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One-stop으로 해결



해주고, 지방4단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협의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중앙과 지방간 마찰을 최소화시켜 상생·협력 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성과는 별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를 가장한 외유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많은데요. 정부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 지방의원 유급제는 유능한 지역인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제하고 통제하여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별로 윤리강령 및 규범 조례제정을 의무화하여 의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표준안'을 지난 11월 7일 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단순 시찰과 견학은 억제하고,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산출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됨으로써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의 규모는 커지는데 오히려 자립도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한데요.

◆ 우리나라 지방재정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재정확충이 주로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근본적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원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행된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거나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사용자·수수료 합리화,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 세외수입 증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역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형평성이 좋은 세목은 기초세로, 불균형이 큰 세목은 광역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 및 부도산교부세 배분기준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혁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을 이끌 리더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따라갈 사람에 대한 교육 즉, '인간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인데요.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장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란 점에서 인간개발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죠. 그런 점에서 유능한 인재, 유능한 공직자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산업사회에서의 인재요건은 '성실, 근면, 순종'이었습니다. 강한 충성심을 갖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산업시대 인재의 보증수표였죠. 이들은 실수할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서 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며, 인간성이 좋아서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직원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그러나 눈이 녹은 다음에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이 있는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전환이 사회전반에 일상화되도록 지속적인 제도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앞서서도 밝혔지만 장관님은 정통 경제관료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고 계십니다. 공직자로서의 삶에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 지난 30여 년 공직생활을 회고해보면 사무관이나 과장시절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있었던 때였습니다. 업동실현에 자정 무렵까지 일하고 퇴근하기 위해 밖에 나와 보면 눈이 소복이 쌓여 있거나 찬바람이 쐬는 때가 많았죠. 차 위의 얼어붙은 눈을 벌벌 떨며 쓸어 내릴 때 밀려오는 짜릿한 감동과 성취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해주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취미는 무엇인지요.

◆ 국세청장이 된 2003년 이후 4년째 매일 5시 40분에 기상해서 6시 15분에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찬회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헬스를 하고 출근하죠. 주말에는 톱툰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구를 즐겨했지만 요즘은 나이를 감안해서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운동이든 운동하는 동안에는 집중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이 이제 창립 32주년을 맞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인간개발'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분야여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온 연구원의 혁신적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전략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혁신'입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도 혁신에 대한 강의나 관련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관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祝! 명장(名匠) 탄생  
 | 나의 경영이야기 |  
 김 영만 고문 KCC  
 제화산업최초 명장수훈 (주)금천



# 명장(名匠)의 장인정신으로 제화산업 발전 이끌어 가는 KCC

강연구 (주)금천코퍼레이션 사장



▶ 1 중국 심양KCC STUDIO에서 개최한 KCC SHOW  
 2~4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명장박람회

## 장인정신으로 최고의 기능 발휘하는 명장

정부에서는 기술, 기능인이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006 대한민국명장박람회(KOREA MASTERHAND EXPO 2006)'를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개최했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사)대한민국명장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명장 80여명이 나와 자신의 기능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행사와 비교해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큰 관심과 더불어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났고, 명장회 측에서도 성의껏 전시작품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자, 작업공정개선, 품질향상 실적, 생산성 향상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남보다 뛰어난 자"를 말한다.

명장 선정제도의 심사기준과 채점방식은 국내 모든 산업을 23개 분야로 분류하고, 다시 84개 직종으로 나누어 그 직종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중 최고의 기능을 소유한 자로서 공정개선, 실용신안등록, 기능인 지도양성 등의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직종에서 명장자격을 갖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에 재심사를 통해 판정하게 된다. 또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아닌 사람이야야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부터 배출된 명장이 현재 260여명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 한복, 양복, 양장, 미용, 이용 등의 직종에서 많은 명장이 배출되고 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비파괴, 정보통신, 기계설비, 자동차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명장들이 선정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국내외의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기능인은 20년의 경력 제한 없이 명장심사 채점의 절반인 50점이 부여되고 있다.

우리회사의 명장이신 김영만 상임고문은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분으로 우리나라 제화산업에서 유일무이한 노련한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영만 명장을 통한 전직원의 전문화 노력 대한민국 '구두명장 브랜드화'로 장인정신 키워갈 것

금천코퍼레이션(KCC-Kum Chun Corporation)은 구두업체, 특히 여성용 고급구두 생산업체에 필요한 특수소재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개발하여 인도, 이태리,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중국, 브라질 등에서 특수소재를 수입하기도 하며, 구두생산 관련 각종 장비, 기계류, 최신 구두설계, 모델개발 및 견본생산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Software CAD/CAM 장비 등을 구두공장에 지원 공급하는 일을 한다.

KCC는 전직원이 구두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강연구 사장

1942년 생으로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금천상사를 설립해 제화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 중앙로타리클럽, 한국수입업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중국시장에 진출한 강 사장은 심양시 皮革鞋業鞋材發展行業協會 명예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오랜 실무경력, 기술, 기능 및 대학교수로서 다양한 구두 관련지식을 겸비한 김영만 명장을 1998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김영만 명장은 상임고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역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제화관련 각종 기사작성, 서적발행, 학원출강, 학계 워크샵 등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2001년 '요철지시대' 특허등록, 2002년 '모범관리자' 수상(산자부 장관), 2004년 11월 대한민국명장을 수훈하면서, KCC도 명장기업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김영만 명장의 작품인 남녀 고급구두 70여 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피혁류, 각종 부품 등 최고급 원부자재류 외 구두 디자인개발 관련 Software-CAD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KCC는 앞으로 '대한민국 구두명장'을 브랜드화해서 최고의 기술·기능을 소유한 장인들을 통하여, 질적으로나 디자인 측면에서 외국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능가하는 최고급 구두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 KCC SHOW 통해 업계에 각종 정보제공 제화업계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력 모색해야 할 때

내년이면 회사를 설립한지 30년이 된다. 필자는 그 동안 국내외를 다니면서 제화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원부자재, 기계, 공구, 생산공정, 신기술, 구두디자인, 모델, 패션 정보 등을 수집하고 공급하며 세계적인 구두관련 전시회에서 분야별로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우리 업계에 공급해 왔다.

이런 최신자료와 정보 등을 보다 많은 제화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2000년 12월 자체 전시회인 'KCC SHOW'를 개최하고 매년 봄가을로 2회씩 2004년까지 총 8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자체 전시회에서는 신사화, 숙녀화, 아동화를 담당하는 이태리 유명 디자이너 2~3명을 초청해 그들의 작품 500여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그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패션 트렌드에 관한 세미나도 열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체 전시회가 중단되어 새로운 활로를 찾던 중 이번 대한민국명장박람회에 참여하면서 'KCC-금천'을 보다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듯 제화산업도 그 생산기반이 중국을 위주로 하여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속도에 비례하여 소재류의 수요도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뭔가 다른 방향의 사업이 모색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을 맞고 있다. 이제 제화산업도 업계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향을 검토하여 스스로 변화해가야만 한다.

우리의 제화산업은 계속되는 시장의 변화, 소비계층의 변화,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심미관의 변화, 유통구조의 변화와 상품조달과 배급조직의 변화, 생산과 판매의 분리, 국내 생산규모의 급속한 축소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화업체들은 자체생산을 대폭 축소하고, 상품개발과 생산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판매, 즉 유통쪽에서의 전문화와 이를 위한 마케팅에 전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말할 것 없이 시류에 맞는 상품개발, 신속한 조달, 유통망 확보, 정확한 마케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재공급사업은 상품개발에 집중된 패션 중심의 신소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

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사업과 판매유통회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상품개발에서 상품화하여 공급, 판매까지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제화산업의 IT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 제화산업의 IT기술 접목과 제2도약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 모색

이에 KCC는 제화산업의 IT화를 위해 관련 핵심 기술인 'Shoemaster'-CAD/CAM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독점판권을 세계적인 제화산업 전문회사인 이태리 'Torielli Spa' 사로부터 들여왔다. 이로 인해 가장 이상적이고 신속하게 구두 패션의 디자인, 모델개발, 패턴작성 등을 일괄 처리하는 노하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날로 위축되어 가는 국내 제화산업에 대비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대책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2003년 6월 중국 요녕성의 수도 심양에 'KCC STUDIO' 종합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동북3성과 북한을 대상으로 그 지역 제화업체들에게 새로운 소재, 구두패션, 디자인 등을 소개하고 상담과 판촉활동을 하면서 KCC를 현지에 심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현지사업방향 모색과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KCC SHOW'를 한국에서와 똑같이 이태리 디자이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3회에 걸쳐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많은 한국제화업계 인사들이 조선족 동포들과 협력하여 심양 시내에서 구두를 만들어 내수판매를 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KCC STUDIO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온 제화업계 인사들에게 정확한 현지상황을 안내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업계에 봉사하는 기업 되기 위해 노력할 것

필자는 현 제화업계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다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다음 시즌에 대한 패션정보, 디자인, 신소재 정보 등을 신속히 입수하여 전시회를 통하여 또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전달해 참고가 되게 하고 있다. 또 제화에 관한 기술, 생산, 개발, 기획, 판매, 마케팅 및 제화업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우리 KCC만의 자랑인 명장 김영만 상임고문과 제화산업 최고의 경영인 이영구 상임고문과 함께 업계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봉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KCC 직원들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창의력과 책임감을 기르고, 동료들과 경쟁하면서도 자기 스타일의 일 처리방식, 운영 등을 실전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훈련된 직원들은 앞으로 독립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과 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거침없이 자기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결국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그들 자신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직장을 만들어 가고, 업계에서 꼭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우리 직원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며, 그들은 내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부응하여 꼭 그 꿈을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 **人間**

제14회 육군 5군단 'KB 승진아카데미' 11월 3일(금)

#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천규승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본원은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군 복무자의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국민은행(행장 강정원)의 후원 하에 병영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육군본부에 개설된 'KB 육군 혁신아카데미'에 이어 4월 21일 육군 5군단에서 개강한 'KB 승진아카데미'는 군단 및 지역 내 영관급 장교와 사병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군단은 아카데미를 통해 혁신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 및 마인드를 함양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사령관을 비롯해 참모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LMI의 '효과적인 퍼스널리더십(EPL)' 과정은 지휘관들의 리더십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 군과의 대화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선진 병영문화 및 군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1월 3일 5군단 사병들에게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를 주제로 제14회 강연을 해주신 천규승 실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변천과정을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 6천불 정도 됩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67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 UN이 조사한 120개 국가 중 최빈국이 방글라데시였고,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60~70년대만 해도 쥐를 잡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쥐 가죽을 벗겨서 팔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쌀을 튀겨 빵튀기를 만들지 말자는 공익광고가 있었을 만큼 쌀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지금은 건설, 유통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도 예전에는 가발,

섬유, 봉제 등에서 지금은 IT산업이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 정부주도형 성장으로 10년만에 한강의 기적 일궈 새마을운동은 후발 개도국의 역할모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대외 의존적이다, 미국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예산의 절반이 미국의 원조였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 농민들 쓰라고 비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 다시 외국으로 팔아먹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우리도 60년대 미국

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탈지분유, 옥수수 등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시장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정부가 사용했죠. 못살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무상 원조해 준 돈이 국가예산의 50%가 되던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독일로 찾아가 차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담보할만한 것이 없어 차관의 대가로 독일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독일 탄광의 광부로 간호사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호사가 독일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우리 정부가 가져가고 서울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줬어요. 정부는 그 돈으로 포항제철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하면서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67년도에 시작됐는데, 이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 수 있습니다”였어요. 지금 들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필리핀은 부국이었습니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발전이 성장의 열쇠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라고 부지런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있다면 북한에는 천리마운동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활동을 적을 무찌르고 원수를 박멸하듯이 하자는 운동이죠.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민족인데 국민성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북한사람들도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열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부지런한 국민성과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안 좋을까요. 일각에서는 자본주의체제가 공산주의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자본주의체제를 가진 필리핀도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미안마는 1962년 네윈(Ne Win, U, 1911~2002)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혁명을 이끌었고, 싱가포르의 1965년 이광요(Lee Kuan Yew, 1923~)라는 사람이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미안마는 자연자원이 풍부해서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왕정이 실시되던 국가의 부를 귀족이나 왕족 몇 사람이 가져가고 일반 국민은 국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자 네윈이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혁명이 실패하면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죠.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요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미안마만큼 잘 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미안마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국가가 잘 사는 것, 한 가정이 잘 사는 것, 개개인이 잘 사는 것은 다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적절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는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과 우리나라죠. 생필품산업을 국내에서 조달하느냐 수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필리핀의 경우 생필품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해 내수산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다면 국민에게

필요하더라도 수입을 하고 우리가 잘 하는 걸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을 키웠고, 그렇지 못한 필리핀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압축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허와 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도 먹고 살만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로 130년 정도 걸렸고, 일본도 120년, 영국은 거의 2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정도 걸렸으니 상당히 빠른 기간에 성장한 거죠. 아무 것도 없는 나라, 가진 건 머리밖에 없는 나라에서 30년만에 1인당 소득을 1만불까지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서 빈곤을 탈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2만불 되는데 6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만불에 올랐다가 외환위기 이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으로 압축성장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한번에 크더니 선진국들을 위협하게 되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해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외환위기의 실상입니다. 선진국들에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경제를 발전시키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방화와 경제구조 개혁 등 여러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 정말로 못 살던 시기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선진국 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사람들은 경제교육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제교육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뜻을 통하고 살 수 있도록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서로간의 채널을 맞추는 과정이죠. 외환위기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전에는 집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하나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 집의 인테리어 등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가 중요합니다. 식당도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놓아야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자동차도 고급화, 대형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경제죠. 우리는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지금보다 더 고급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물가수준은 그대로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주위 사람도 많이 벌고,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도 벌어야하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만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사회가 어려워졌다면 전처럼 먹고살기가 힘들어져야 합니다. 입성, 먹성이 달라져야 해요. 결국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일류대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 경제도 세계 10위권에 있는 것도 있고 100위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쟁상대를 미국

이나 일본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대치가 크면 좌절도 크기 마련입니다. 내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세우야 좌절도 없어요.

## 경제적 품격을 지키는 사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어야

그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는 돈의 가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물가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에는 기부금입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기부금제도를 통해 기부자의 이름을 딴 건물도 만들고 대학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는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둘째는 최종 단계에서 선택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흔들려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다가도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확하게 줄서 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평소에는 잘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품격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겁니다. 경제적 품격은 돈이 많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군생활 모두 마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단체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상하좌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조금 숙여야 할 경우를 압니다. 반면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부족합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려는 노력, 행동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내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은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교육이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가 주는 교훈은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피 많은 토끼는 낙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북이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주 도중에 낮잠 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도 나쁘다는 겁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으면 토



끼가 거북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이라도 꼭 거북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만 생각한다면 거북이가 한 번은 이긴 것이지만 평생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방법에 착안해야 하는 거죠.

##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 경쟁은 사회를 움직이는 활력소이자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처럼 보인다고 그 공짜를 덤석 무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경쟁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알래스카 주 정부에서 순록 스포츠사냥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즐기기 위해 알래스카를 찾았는데, 늑대가 순록을 자주 잡아먹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 정부가 사냥꾼을 동원해 늑대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순록 숫자가 4만 마리에서 30만 마리로 늘었어요. 알래스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순록 숫자가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순록이 성인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늑대가 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천적이 없으니 먹기만 하고 비만해져서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시 늑대를 풀어놓았더니 개체수가 4만 마리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쟁은 사회 전체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손발로 움직여지고 실천될 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질이라는 것, 아까도 말한 품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수요, 공급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과 경쟁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제적 사고와 품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사회의 참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큼 익숙한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가장 익숙한 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 성공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야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이야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불교용어인데, 물은 하나인데 한 가지 물이 보는 관점에 따라 네 가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천상의 천사에게는 수정과도 같은 보화이고, 사람에게에는 마시는 물, 물고기에게는 집, 악귀한테는 피고름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경제, 똑같은 사회를 피고름같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배처럼 보시겠습니까? 수정과 같은 보화로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공자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늘 '난 안돼, 힘들어'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고 성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경제의 흐름은 세계화와 지역화, 지식정보화입니다. 앞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식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5년 정도면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그 때면 여러분이 제대하고 사회인으로서 적응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때를 위해 여러분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 천규승 실장

1956년 생으로 일본 히도츠바시(一橋) 대학을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교육연수실장, 재정경제부 경제홍보지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객원연구원, 중앙일보 경제교육지원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이기도 한 그는 방송을 통해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준비하자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2007년 8월이면** 내 나이 만70세가 된다. 참 세월이 빠르다. 10년 전 환갑 때는 별로 해놓은 일도 없이 벌써 환갑이라는 부끄러움에 가족들과 조용히 생일을 보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과 나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생각하노라면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잠시도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나의 심신의 안전에 별탈이 없었던 것은 건강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준 내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과 국내외 고마운 분들의 나의 건강에 관한 정성스런 배려 때문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

젊은 시절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들을 성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해내지 못한 숱한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정열적으로 살아온 지난 10년의 세월, 어떠한 힘으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 70의 고령에 이르고 말았다. 내 생애를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내고 말겠다는 꿈과 목표를 담은 비전이 꾸짖듯, 유혹하듯 나에게 야릇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너는 70세가 된 이후에 너의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고 묻는 듯.

나는 매일 아침 3~4시경에 일어나면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을 읽고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동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2006년을 다 보내기 전에 70세 이후 '제3의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목상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내가 세운 비전에 특별한 계시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되기까지가 '제1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대학교수직을 떠나서 코리아마케팅이라는 국제홍보회사를 설립하고 국가를 위한 외자유치와 수출마케팅에 공헌했던 일, 잘 나가던 회사를 경험부족으로 망심한 나머지 2개월의 긴 해외여행 중에 직원들의 배신으로 부도를 내고 문을 닫은 일, 실패를 딛고 30대 후반에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해서 31년을 보내고 지금까지 연구원을 경영해온 것을 '제2의 인생'으로 정리해 본다. 세계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인간의 행복이라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이념과 Better People Better World(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뿌리내리도록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지치 않고 추진해왔던 시절이다.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30여 년의 세월을 보낸 '제2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로 생각해 본다.

지난 30년간 제2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고맙고 아름다운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을 이루어놓았다고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0~60대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며칠 전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장성군의 행정혁신 성공신화로 만들어 놓고 공직을 떠나 명예롭게 시간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김홍식 전 군수와

만나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제2의 인생을 의미있게 정리할 수 있었다. 김 군수는 내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그늘진 곳을 보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온 가운데, 변변한 집도 차도 없이 생활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존경심을 갖게 됐다며 보통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홍식 군수와의 인간관계는 그가 장성군수로 취임하던 11년 전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1995년 9월 15일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시작해 그동안 깊은 관계를 갖고 군정혁신 신화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약해 보이는 나의 경제생활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김 군수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많은 협력자들을 허락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제3의 인생'을 살아야할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갖게 된다.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극복해온 온갖 어려움이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제3의 인생에 도전하게 한다. 여기에 이제부터 내가 도전하게 될 30년의 인생설계가 자리잡고 있다. 100세에 도전하는 인생설계이다. 제임스 엘런이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마음을 따르는 종이다"라고 한 것처럼 내 나이 100세에 이르도록 건강이 뒷받침 돼 나의 비전과 꿈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키워 찬란하게 창조하는 것이 나의 '제3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란다.

2000년에 정리해둔 '새천년 새사람 새세계'라는 3개의 키워드가 말해주는 밀레니엄의 비전을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담아 세계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인간의 행복을 전세계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한국인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7000만 동포가 함께 이루어내도록 다이내믹하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폴 J. 마이어의 성공철학을 확신하고 나의 '제3의 인생'을 출발하고자 한다. 2007년 새해에는 연구원의 회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비전의 협력을 바라면서 2006년 송년인사를 드린다. **人間**



#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미래를 향하여

창립 31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6년을 새로운 30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도약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향후 30년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올 한해 연구원의 활동을 정리하고, 2007년 연구원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세미나

### ■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초청



### 창립 31주년 기념세미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경제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디지털사회의 구현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이 이상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디지털세상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사회에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ue)를 결합한 ‘디지로그(Digi0Logu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기 정보사회의 밝은 미래를 모색해보는 창립 31주년 기념세미나가 2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제143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겸해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이어령 박사는 “디지로그를 앞서가는 한국인”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사회가 첨단화될수록 인간의 본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날로그에 대한 지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상호성으로 인한 집단의 문화가 후기 정보사회를 주도해나갈 것이란 점을 역설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 대한민국 대표 조찬브랜드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대한민국에 조찬문화를 정착시키며 회원들간의 학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이제 한국의 대표 조찬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1월 12일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강연은 한미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북 관련 논의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김흥식 전 장성군수, 서건일 중국 길림시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현 유엔사무총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정재관 코엑스 사장, 박대성 한국화가, 전영기 중앙일보 기자, 최영기 한

국노동연구원장 등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해 열린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11월 현재 1480회의 강연이 이어지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2007년에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교육

### ■ 중국 지린성 고위공무원 한국연수프로그램



### 한국의 경제성장 체험과 향후 중한관계 전망 기회 가져

본원은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국제화와 국제협력에 이루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던 중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중한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함께 중국 지린성 공업경제 담당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선호춘 지린성 사평시정부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연수팀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혁신 및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유한킴벌리, 웅진식품 등의 기업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혁신노력과 선진 경영기법을 듣는 등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연수팀은 교육을 통해

혁신을 일으킨 전남 장성군과 새마을연수원 방문, 새마을운동에 관한 주제강연을 통해 지방행정의 발전상과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중국 지린성 시장·군수 새마을교육프로그램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다

2월에 진행된 지린성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이어 지린성 정부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팀 38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다른 교육이었다. 연수팀은 한국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성공사례 및 농업정책, 그리고 한국의 농촌발전상에 관한 강의와 교육, 현장방문을 통해 중국 도농의 동반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동북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문화지식병영을 통한 인재육성사업



군 혁신 위한 '혁신아카데미', '리더십교육' 개설

본원은 2005년 송년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軍隊를 軍大'로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지식병영을 통한 인재육성사업'을 발표하고 국민은행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4월 5일, 육군본부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육군참모총장 주관 하에 영관급 장교 250명을 대상으로 <KB 육군 혁신아카데미>를 개설해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4월 21일, 육군 제5군단에서는 군단 및 지역 영관급 장교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KB 승진아카데미>가 개설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 5군단, 육군 66사단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LMI의 '효과적인 퍼스널리더십(EPL)' 과정을 개설해 지휘관들의 리더십 함양에 힘쓰고 있다. 한편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명사들은 군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아카데미 저변확대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본원이 최근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군 복무자의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작한 이번 사업은 앞으로 'M-CAMPUS'라는 온라인 사업과 함께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 전개로 선진 병영문화 및 군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교류

■ 한중경제협력대표단 파견



동북3성의 중심을 꿈꾸는 지린성을 가다

본원은 중국 지린성·지린시 협조로 중국정부 및 기업과의 교류와 중국 투자환경을 경험해보기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중경제협력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22명의 대표단은 제2회 중국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관과 지역 산업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연구원과 지린시가 공동 주최한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참가하는 등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대표단은 일정 중 중국 고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지린성과의 정기적인 교류 합작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편 중국이 그 동안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중공업에 역점을 두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린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빠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대외협력

■ 중국 감속성대표단 방문

장만기 본원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서영 중국 감속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감속성대표단 7명과 조찬모임을 갖고 투자 및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영 주임은 이 자리에서 감속성은 광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장만기 회장도 한국 기업들이 감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중국 지린성 경외취업협회와 한중우호협력 협약식



중국 지린성경외취업협회(단장 신봉철 길림성 노동사회보장청 청장 외 9명)는 본원을 방문하고 한중 인력교류사업의 장기우호합작을 위한 협약식을 9월 28일 롯데호텔 토파즈룸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측은 향후 한중 경제교류, 문화교류에 도움을 주고 취업세미나, 인재교류회, 인력자원 전시회 등의 행사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원

■ 장만기 회장 지린시 경제고문 및 지린대학 고문교수 위촉

장만기 본원 회장은 4월 22일~26일까지 중국 창춘을 방문, 24일 지린대학으로부터 고문교수로 위촉받고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한편 6월 4일부터 7일까지 지린시를 방문한 장만기 회장은 시로부터 경제고문으로 위촉받고, 서건일 지린시장 등 지린성 고위인사들을 만나 양측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7월 12일 서건일 시장을 비롯한 지린시경제무역대표단이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양병무 원장 숙명여대 초빙교수 위촉

양병무 본원 원장은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받았다. 양병무 원장이 저술한 <주식회사 장성군>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혁신이야기를 다룬 책으로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전 공무원에게 편지를 보내 일독을 권유하기도 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양 원장은 리더십 및 인적자원개발, 혁신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회원친선행사

■ 회원친선 - 국가정보원 방문

김승규 국가정보원 원장의 초청으로 8월 25일 본원 임원 및 회원 80여명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하였다. 이 행사는 국정목표달성과 국가안보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치열한 정보활동을 펼쳐 정보강국을 만드는데 중심 축을 이루는 국정원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날 참가한 회원들은 국정원에서 실제 권총사격을 해보고 안보전시관을 둘러보는 등 교류의 시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즐겼다.

■ 회원친선 - 코엑스 나들이



제147기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하셨던 정재관 코엑스 사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원들은 국내최대의 테마형 해양수족관인 아쿠아리움과 기타 앙상블 '피에스타'의 공연을 관람했다. 또한 코엑스 내 시설을 둘러보고 당일 진행되는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한국전시컨벤션산업의 심장부로서 코엑스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 사장은 행사 내내 참가자들과 함께 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 이종기업동우회 정기활동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2그룹-다락회(회장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3그룹-화목회(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4그룹-인목회(회장 김정배 수성 사장), 인경회(회장 이심 주택문화사 사장),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 아주대 명예교수)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사 방문, 초청강연, 골프모임, 여행 등의 모임을 가지며 상호 친선 및 경영정보 공유 등 본원 31년 역사의 회원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1그룹에서는 지난 10월 일본 아오모리 지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3그룹에서는 9월 모임을 청평 양수발전소로 부부동반 야외회로 꾸미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 ■ YCF 정기모임



YCF(회장 김상래 성도GL 사장)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들간 상호교류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형식적인 친목도모의 모임에서 벗어나 춤으로 배우보는 몸풀기, 한강 요트세일링, 갤러리 사진감상, 크리스마스 빵과 쿠키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으로 유쾌한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하게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 ■ 차이나클럽 정기모임

세계 경제무대에서 급부상중인 중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차이나클럽(사무총장 이두호 KIS-BANK 사장)에서는 올 한해도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을 배우 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06년 중국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신년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국의 에너지 문제, 동북공정문제, 중국의 인적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특화된 모임의 성격을 이어갔다.

## 지방자치 / 한국엘엠아이

### ■ 인간개발 지방자치아카데미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본원의 지방자치아카데미가 민선4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올해 60여 지자체에서 진행된 아카데미에서는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 조세혁신을 위한 과제, 혁신사례 소개, 21세기 트렌드 등 정치, 경제, 경영, 교육, 건강, 가정, 외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 520여 회의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필요성 인식으로 인해 고흥군청, 진안군청, 거창문화원, 인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민세 인재홍 기념사업회, (주)리바트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 및 대학

과 기관에서 신규로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07년에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한 차원 발전된 대화체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500회 특강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전남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지난 8월 24일 500회 강연을 맞아 기념특강을 열었다. 역대 강사와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병무 본원 원장은 “장성군의 재창조”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념특강에 앞서 유두석 장성군수는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과 양병무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 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LMI 프로그램



사람이나 조직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갖는다. 누구나가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날마다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인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이끌어주는 퍼스널리더십프로그램(EPL)이 기존의 기업, 대학에서 군 지휘관 교육까지 교육범위가 확대되면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월 8일 66사단 개강으로 시작된 군 리더십교육은 이후 4월 19일 5군단, 8월 8일 육군본부에서 차례로 개강했으며, 현재 5군단과 66사단은 교육을 수료한 상태이다. 기업교육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영기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월 18일 교육을 시작해 5월

18일 수료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인 (주)하도에서는 옥평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해 현재 EPL 2기까지 교육을 마쳤으며, 10월 23일부터는 ‘효과적인 개인 생산성(EPP)’ 교육이 진행중이다. 숙명여대에서는 작년에 이어 현재 EPL 8기 교육이 진행중이며, EPL FT 1, 2기가 교육을 마쳤다. 한편 본사에서는 1월 19일 EPL 70기를 시작으로 현재 75기 교육이 진행 중에 있어 LMI 프로그램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 섬김의 리더십

정영주 서비스월드 대표



200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올해의 남은 몇 일 동안에 소홀했던 사람들과 서둘러 만남을 가지고 올해 약속했던 일들을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2006년 한해를 잘 살았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꿈꾸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관계가 결국 나를 이롭게 해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변화하기 마련**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삶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깊이 탐색하고 그 가치를 창조해 내며 자신이 창조한 그 가치에 만족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 한해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지난 15년간 강연활동을 통해 저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강연을 통해 추구해 왔던 가치는 상대의 만족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관계가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는 그것을 ‘이미지메이킹’이라 하고, 기업에서는 ‘고객만족 경영’, 관공서에서는 ‘CS혁신’, 병원에서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분야에서는 ‘고객응대 전략’으로 그 표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

## 정영주 대표

1960년 생으로 대구 카톨릭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비스월드 대표 및 Top HRD Group 원장으로 재직중인 정 대표는 삼성전자 협성회 연수원 전임강사, 월드컵 친절운동본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법원공무원연수원, 경찰교육연수원, 서울시교육연수원 등 기업 및 공공기관, 대학에서 서비스 강사로 활동 중이다.

치는 하나입니다. 상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대화와 태도, 그리고 그것이 배어 나오는 표정과 행동에 관한 연구는 제게 주어진 삶의 과제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업 컨설팅과 교육을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찾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도 초점은 타인을 섬기는 가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단체에 고객을 섬기는 호칭과 인사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에 맞는 고객응대 프로세스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일도 고객을 위하는 길이 기업을 흥하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사람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 하나가 주는 힘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제 삶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변화된 행동을 낳는다고 믿었던 저는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행동부터 바꿀 때 마음도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우리의 서비스 마인드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 남을 섬기고 베푸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돼

이젠 국민 모두가 '고객님'이란 호칭이 익숙해졌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하면 기업은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환영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알기 위해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고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체험에는 양극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향상되고 세련된 서비스 문화와 기법을 함께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는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친절하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곳은 없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십 수년간의 기업, 관공서, 병원 등 우리사회 곳곳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저를 비롯한 많은 산업체 교수들의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 할 때 기업과 개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때 서서히 고객은 그 기업을 외면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연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노력은 기업이 항상 먼저 앞서 나갔었습니다. 기업은 고객을 섬기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고객

의 요구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이 기업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유지하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파급은 전국 모든 기업과 기관, 학교와 병원 등 우리사회 곳곳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거친 생각들을 버리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미래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그러나 제가 꿈꾸는 우리사회의 모습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조직에는 섬김의 논리와 고객만족 경영기법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우리사회 곳곳은 거친 생각과 말들로 가득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거칠게 상대를 공격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상처를 들어내고 소중한 인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메스미디어에서는 날로 저급한 언어와 행동들이 난무하며, 질 낮은 문화가 마치 우리의 본 모습인양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에 폭언으로 교육하노라 하는 부모와 선생님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개인과 사회가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화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질타와 비난, 편가르기와 저주의 고통을 벌이지 않고도 미래의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의 체면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품위 있는 행동과 교양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서로의 섬김과 배려 그리고 건강한 미소와 유머 넘치는 대화 만으로도 갈등을 해소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도 당신을 더 높이 섬기며 내가 먼저 베풀 때 그들도 반드시 나 혹은 또 다른 이에게 베풀을 나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동료나 가족이 실수했을 때 비난과 질타를 멈추고 격려해 주십시오. 동료 가족이 잘한 일을 했을 때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격려와 칭찬은 아무리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옆자리에 있는 가족, 동료에게 한 마디 건네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김팀장! 내가 늘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아들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장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가까이 여기에 동참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사회가 서로를 섬기고 높이는 품격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人間)

# 회원&연구원소식

## ■ 회원소식

• **한국FP협회(회장 윤병철)**는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파이낸셜플래닝을 제시하는 'FP컨퍼런스 2006'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이낸셜플래닝 실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국내외 경제 및 금융동향, 고객접촉에 필요한 교양,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전략 등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 아 래 -

- 일 시 • 12월 2일(토) ~ 3일(일)
- 주 제 • Better Planning Better Life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문 의 • 02-3276-7636

•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매출액 기준 세계 5대 협동조합기관에 선정되었다. 지난 10월 25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협동조합 국제포럼'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전농과 전공련, 프랑스 프레디 아그리콜, 미국 전국상호보험회사(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에 이어 5위에 랭크되었다.

• **중소기업은행(행장 강권석)**과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 **웅진씽크빅(회장 윤석금)**은 창설 61주년을 맞는 해군에 12만권의 위문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에 해군은 기증 받은 도서를 일부 부대 도서관과 함정, 도서지역 장병 생활관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웅진씽크빅은 1차로 해군 제2함대사령부 호위함인 전남함을 직접 방문해 320권의 도서를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 **심갑보(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 회원은 지난 11월 17일 숙명여자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 CEO특강에 강사로 초빙되어 숙명여대 음악대학 연주홀에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우덕성(썬테일러 사장)** 회원은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 아 래 -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8-7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1층 4호
- 전 화 • 02-797-3939 / 팩 스 • 02-752-5841

• **수성(사장 김정배)** 은 사업 확장이전에 따라 사무실을 청라 경제자유지구로 이전하였습니다.

- 아 래 -

- 주 소 • 인천 서구 경서동 673-18
- 전 화 • 032-820-5112 / 팩 스 • 032-584-5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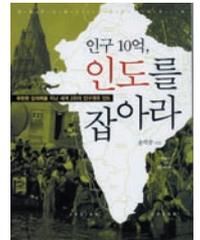
• **한국야쿠르트(대표이사 김순무)**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주



최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2000여 명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6만 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만든 12만 포기의 김장김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2만 5000여 가구에 전해진다.

• **삼화페인트(대표이사 부사장 윤석영)** 늘푸른 수성내부용 1급 (KSM 6010-2종1급)과 인플러스 결로텍스 제품이 친환경건축자재 품질인증(HB 마크) 시험결과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윤백중(삼화비닐 회장)** 회원은 <인구10억, 인도를 잡아라>(삶과꿈 출판)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저자는 인도의 통상 투자환경, 문화, 역사, 불거리 등과 함께 인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였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강민지(골프가이드 대표)** 회원의 장녀 하영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12월 2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잠실향군회관 별관 연리지예식홀 특실

• **윤백중(삼화비닐 회장)** 회원의 장녀 수진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12월 16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이동호(호텔롯데 상무)** 회원의 자녀 미영양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정태익(경남대학교 초빙교수)** 회원의 자녀 해용양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 3그룹-화목회(회장 황석희), 4그룹-인목회(회장 김정배)**의 12월 정기모임은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12월 26일 오후6시 30분 /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진행됩니다.

• **이중기업동우회2그룹-다락회(회장 박세직)**는 지난 11월 7일 나병선 멘토링코리아 컨설팅 대표를 모시고 “멘토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12월 정기모임은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 **YCF(회장 김상래)**는 11월 27일 <빵굽는 CEO>의 저자 김영모 대표를 모시고 쿠키를 직접 구워보고 빵에 대한 철학과 삶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는 지난 11월 28일 한양c.c에서 월례경기를 갖고 회원친선과 건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최계순(반포텍 사장)**회원의 부인께서 지난 11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동원(전 외무부 장관 / 전 동원대학 이사장)** 회원께서 지난 11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동원 회원은 인간개발연구원의 고문으로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자체소식

•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2006년 도시평가” 수상 도시**  
건설교통부 주최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06년 도시평가에서 본원과 함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 **국무총리상 수상 - 장성군**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전국 제일의 산림자원인 축령산에 특화 숲을 조성

해 산림욕장으로 활용하고, 황룡강에는 자연관찰 학습로와 습지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청소년 환경교육과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군민 전체의 능력향상을 위해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각종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친환경부문 수상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경관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고, ‘푸른 광산 가꾸기’를 통해 녹화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친환경 개발사업인 송산공원은 황룡강 중앙에 위치한 섬에 잔디와 나무를 심고 운동장, 휴양림, 물놀이시설과 생태연못, 야생초화원을 조성했다.

• **문화부문 수상 - 원주시**

원주시(시장 김기열)는 과거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원주치악제를 국가사적공원인 강원감영과 연계해 역사성을 더한 테마형 축제로 전환시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국제 군악제인 원주국제따뚜를 평화와 군악을 접목시킨 아시아 최대 국제 군악제로 발전시켰다.

• **도시관리부문 수상 - 여주시**

여주시(시장 오현섭)는 도시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성의 향상이 두드러졌고 대규모 산업시설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청에서 전산화된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제작해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우고 마을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적 도시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원근건설	한의섭 회장	12월 7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주)삼탄	강태환 사장	12월 10일
신명인태내쇼날(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주)다영산업개발	이종원 대표이사	12월 16일
(주)성도GL	김상래 대표이사	12월 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주식회사 교보문고	권경현 대표이사	12월 24일
일신타광금속(주)	김유훈 대표이사	12월 26일
한일시멘트(주)	허정섭 회장	12월 28일
선진개발(주)	안민호 대표이사	12월 29일

## ■ 연구원소식

### • 회원친선행사 '코엑스 나들이' 를 마치고 .....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제1471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하셨던 정재관 코엑스 사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다시 만난 정 사장은

짧지 않은 행사시간 내내 회원들과 동행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설명해주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코엑스의 모든 행사와 전시가 정재관 사장의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며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에 참가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 작은바다, 아쿠아리움



동화책의 줄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각각의 테마파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뻑뻑이 엮

어진 나무줄기로 만들어진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맹그로브 지역의 여러 어종들을 관람하고, 고운 모래의 해변가를 도착하니 커튼처럼 떼 지어 다니는 골든 트레벨리를 만나기도 했다. 180° 해저터널에 도착하니 100살까지 산다는 바다거북과 상어를 닮은 톱가오리가 일행을 반겼다. 이때만큼은 참가한 회원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어린아이의 눈빛으로 해저터널에 빠져들고 있었다.

### • 만남과 나눔이 있는 클래식 음악 - 기타 앙상블 '피에스타'



아트홀은 저렴한 입장료로 클래식공연과 함께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입장료 7,000원, 샌드위치 제공) 청소년

에서부터 성인까지 관람객들의 연령층이 다양한 문화공간이다. 이번 공연은 기타 앙상블 '피에스타'의 연주로 채워져 회원들은 소극장을 울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기타선율에 잠시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클래식 공연 같은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코엑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전시 회의시설

실제 코엑스의 중심부를 말한다면 전시장과 회의시설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전시공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며 코엑스의 생동감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아셈홀과 오디토리움은 그 위용과 웅장함이 놀라울 정도였다. 특히 아셈홀은 지난 2000년 아셈회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곳으로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신라시대 불꽃모양 금장과 내부벽면의 십장생 장식으로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16개국 동시통역이 가능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품격을 지닌 최고의 회의시설이었다.

### • 코엑스를 나서며

무엇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인하여 아는 것 두 가지이다. 그 동안 젊은이들만의 장소로 여겨졌던 코엑스가 이번 회원친선행사를 통해서 참석하신 회원들에게는 한국 전시·컨벤션산업의 자부심이자 비전과 꿈이 있는 곳으로 재확인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코엑스 방문 행사를 마련해주신 정재관 코엑스 사장님과 수고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1-3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LMI & YOU

##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 퍼스널 리더십 대한민국 군대, 육군과 공군으로 확대



**조직이 변화하려면** 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기업의 임원 및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자기혁신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인 퍼스널 리더십 프로그램을 보급해 온 한국엘엠아이(주)는 지난해 숙명여대 교수들이 참여하여 현재 여덟 번째 팀이 진행 중이며, 두 팀의 강사양성과정을 마쳤다.

금년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국민은행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화지식병영사업 중 리더십과정을 맡아 66사단과 5군단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육군본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군본부에서도 도입을 결정하고 인선 작업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연구하는 대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서로 토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여느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때문에 참가자의 태도와 책임감이 중요하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자기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진실한 고백이다. 공통적인 대부분의 반응은 첫째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이다. 5군단 팀이 수료하는 자리에서 군단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10년만 미리 했어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좀 더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책연구소인 노동연구원도 원장을 비롯한 원내 소장급 연구원 팀이 EPL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기관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학습효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함께 했던 최영기 원장은 “주요 간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했고 연구기관 평가에서 1위를 하게 되는 팀워크를 갖추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했다.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 이제 변화와 혁신은 밥과 김치처럼 따라다니는 익숙한 메뉴가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경영환경은 근본적으로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개선활동들이 단기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안에서 진정으로 원해서 선택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지도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물질적 복지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복지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집중’ 과정 개강

- 일 시 : 12월 7(목) ~ 9일(토)까지 2박 3일
- 대 상 : 각 분야 리더,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장 소 :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외국학 종합연구센터(031-330-4114)

####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76기 개강

- 일 시 : 12월 12일(화) 오후 7:30~9:30
- 대 상 : 각 분야 리더,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장 소 : LMI 본사 강의실

· (주)하도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효과적인 성과향상(EPP)’ 과정이 진행 중이다.

· 11월 17일(금) 포천에 위치한 육군5군단에서 이성출 군단장 외 8명이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수료식을 가졌다.

· 본사에서는 매주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EPL)’ 프로그램 74기, 75기 교육이 진행 중이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_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스

#### Big Dream&Success 모임안내

· 제38차 LMI 수료자모임이 12월 11일(월) 오후 6시부터 안국교육장에서 이세구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STARGRAM 인간관계분석법’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매주 금요일 오후3시 안국교육장에서 KICK OFF MEETING을 갖는다.

· 12월 17일(일) 오전 9시 30분 청계산 정기등산 모임을 갖는다.

· 공한수 사장과 김관희 이사는 <우리 2세 걸작품 만드는 길>을 출간하였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 인격과 국격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사람의 품격을

인격(人格)이라고 하듯이, 나라의 품격을 국격(國格)이라고 한다. 얼마 전 중국 인민일보에서 중국인의 행동은 중국 국격에 맞아야 한다는 논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 후, 후지와라 마사히코(藤原正彦)라는 일본의 수학자가 쓴 <국가의 품격(品格)>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일본의 국격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드높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논한 좋은 책이었다. 일본에 관한 나의 평소 생각과 비슷한 점도 많았다. 다만 일본의 전통인 무사도(武士道)의 유지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다.

완벽한 인격이 없듯이, 완벽한 국격은 없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격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국의 국격은 흥겹고, 인정 많고, 우수한 창의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배타적이고, 분열하기 쉽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습성이 강하다. 일본 국격에는 깨끗하고, 근면하고, 매사에 철저하며, 유사시에 단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웃나라와 어울리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며, 강한 자에 대해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를 대할 때는 인정사정이 없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평소 자기인격을 도야(陶冶)해야 하듯이, 나라도 국격을 잘 길러야 한다. 국격의 좋은 면이 나타날 때에는 나라가 좋아지고, 국격의 약점이 날 때에는 나라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평상시에 국격을 잘 닦아서, 어려울 때에 대비하여야 한다. '추운 계절이 와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는 공자의 말씀이 있다. 역경이 와야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나라가 어려워져야 비로소 그 나라 사람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나라가 잘 될 때나, 안될 때나 한결같이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는 나라는 어떤 위기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나라이다. 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어쩔 줄 모르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나라는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금융 모임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다. 며칠 동안의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서 놀랐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나라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일국의 경제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과 그 나라 문화, 즉 그 나라 국격의 산물이다. 중국경제는 중국 국격의 산물이고, 일본경제는 일본 국격의 산물인듯이, 한국경제는 한국 국격의 산물인 것이다.

국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진화가 뭐니, 금융허브가 어떠니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의 국격은 미성년수준에 있다는 말을 해왔다. 우리는 좀더 국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성년이 판을 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이 당장 인터넷과 신문에 뜨고, 시중간판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자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좀더 부드럽고 우아해야 한다. 말이 중요하다고? 그렇다. 말은 그 나라 국격의 표상이다. 우리나라 말은 원색적이고 막말이 많다. 이런 말들이 판을 치는 한, 아무리 반도체를 수출해도, 아무리 한미 FTA를 해도 소용이 없다. 가시가 돋쳐있는 원색적인 말이나 광고를 볼 때, 눈을 가리고 싶다. 쏟아져 나오는 너무나 수준 낮은 책을 볼 때, 이 나라의 반지성적(反知性的)인 문화에 절망을 느낀다. **人間**

